



(개학을 앞둔 신학교 전경)



(슬리벤 분교생들과 함께)



(올란뎀씨 교회개척행사)



(불가리아의 봄)

불가리아 선교편지 09년 5월 1일 김호동 배점선 선교사

늦추위에 잔뜩 움추렸던 꽃들이 산과 들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봄을 맞이한 선교사의 마음도 주님 주시는 비전으로 인해 설레일 때입니다.

1.지난 주일에는 돌나바냐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건물 네칸중에 두칸을 열어 예배를 드렸으나 이제 성장하여 네칸 공간의 벽을 다 헐고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단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2.신학교는 신학을 맞이하여 강의가 진행 중입니다. 소피아 본교에 10명의 학생이 슬리벤 분교에는 12명의 학생이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 훈련중입니다.

3.주님께서 해운대제일교회를 통해 이 땅에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남서울비전교회가 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역시 08년 12월 18일부터 남서울 비전교회를 파송교회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4.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 신학교 교수요원으로 오셨던 이서용 목사 내외분께서 철수 하였습니다. 이목사님의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가리아를 사랑하는 마음 가득한 분들입니다. 건강회복하여 돌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5.올란뚝찌교회개척 4월 12일 올란뚝찌에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그리고 두명의 전도사님을 사역자로 파송하였습니다. 이 교회는 7년 전 개척한 말라썬찌교회에서 개척사역을 이루어내었습니다.

6.신학교 재정 작년 연말 이후 신학교와 교단운영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학교 직원들의 급료지불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김호동 배점선 선교사 드립니다.